

순조 궁중연희 내연 무대의 朱簾, 甲帳에 관한 연구

-修理·排設 부분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ed Blind and Gabjang on the Playacting Stage
at the Royal Palace under King Sunjo

-Focusing on Repairs and Installation-

석진영*

Seok, Jin-Young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동수

Han, Dong-Soo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Royal banquets under the reign of King Sunjo saw developments in the playacting stage, which exhibited characteristics unique to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Jeongjo and Gojong this period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e Joseon Dynasty's playacting stage construction. Starting with the Jagyeongjeon-Hall banquet and continuing into the Year of the Golden Rat banquet, the next-day banquet by the Crown Prince demonstrates a renewed format, with the stage also changing accordingly. This change was substantiated by more assertive use of the Red Blind and gabjang. Previously, the Red Blind has been installed in the palace hall and around the royal courtyard, to form three sides, but as next-day banquets became more frequent under Sunjo, the Red Blind developed and came to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hierarchy within the royal family. In the Year of the Golden Rat banquet, the Red Blind was lifted and the throne of the crown prince was situated in the palace hall. In the banquet of the following year, however, the Red Blind was let down and the crown prince's throne was placed outside, in palace court yard. This seems to have been a gesture to reorient the crown prince's political standing and restore Sunjo's sovereignty the following year. Hence, the installation of the Red Bli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royal hierarchy and ranks under Sunjo's reign. The gabjang provided the second layer of protection for the playacting stage. The hongjeongju gabjang surrounded the stage in multiple layers and served as a partition. The gabjang from the Year of the Golden Bull banquet, in particular, boasted a unique installation, where it dangled from both sides of the royal palace's facade. Hongjeongju gabjang, lapis lazuli gabjang, red gabjang, and yellow curtains were installed in the stated order to reflect Sunjo's 40th birthday as well as the 30-year anniversary of his coronation. The Red Blind and gabjang from Sunjo's years were positioned in creative ways to reinstate the royal authority, and demonstrated many improvements from those of Jeongjo's reign.

주제어 : 순조, 효명세자, 朱簾, 甲帳, 修理, 排設

Keywords : King Sunjo, Prince Hyomyeong, Red Blind, Gabjang, Repair, Installation

1. 서론

조선시대에는 왕실 구성원들을 위한 사적 연희 및 관

리들과 함께하는 공적 연희가 설행되었다. 이는 왕가 친족의 결속과 군신 간의 정치적 위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왕실 연희 구성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병풍과 갑장을 이용하였다. 또한, 비와

* Corresponding Author : seokjump@hanmail.net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차일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과 재해로 인해 궁중연희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광해군, 숙종 시기를 거치면서 연희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양상을 보인다.¹⁾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왕실의 연희는 주로 대비들을 위로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설행된다. 대비들을 위한 內宴은 왕을 중심으로 설행된 外宴과는 연희 무대 구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내연에서 연희 구성에 필요한 가설 시설들이 나타나며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점이다. 외연에서는 遮日과 補階, 내연에서는 차일, 朱簾²⁾, 甲帳³⁾ 등이 행사의 목적과 장소에 따라 변화되었다. 특히 왕실의 발인 주렴은 갑장과 함께 조선후기에 연희 무대의 공간구획, 즉 벽체 구성의 주요 가변시설로 설치된다. 주렴과 갑장은 殿閣과 殿庭의 보계 위에 드리우거나 두르는 형식으로 배설된다. 이러한 특징은 정조 시기를 거쳐 순조 시기의 연희 공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순조 시기에 열린 상당수의 연희는 효명세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대리청정 기간에 연속으로 설행된 연희에서 주렴, 갑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연희 무대의 변모와 변화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연에서 가설시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정조 시기와 이후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고종 시기의 과도기적 시기인 순조 시기를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렴의 구체적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순조 시기에 연희 의뢰에 정착된 주렴과 갑장의 설치 경향, 설치 방식과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식은 의뢰를 중심으로 班次圖와 修理·排設⁴⁾에서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리·배설은 궁궐 영건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축의 자재와 품목들을 알 수 있는 의뢰의 기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뢰에 기록된 수리·배설 중에서 궁중연희 무대 조성과 관련한 진찬, 진작의뢰의 수리·배설을

1)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 『국역 수연등록』, 민속원, 2004, 16쪽

2) 朱簾은 왕실에서 사용한 귀갑문 문양에 朱漆한 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內宴의 무대에 가벽 시설로 설치된 연희주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3) 甲帳은 장막의 종류로 겹으로 둘러친 帳이다. 본 연구에서의 장막은 의뢰의 용어인 甲帳과 揮帳으로 연구하였다.

4) 본 연구에서의 修理·排設은 궁중연희에서의 진작, 진찬, 진연의뢰에 기록된 수리, 배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궁중연희 무대에 배설되었던 요소들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하고 필요한 장소에 맞게 배설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궁중연희 무대 조성에 관한 수리·배설의 의뢰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연희 무대 가변시설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 남아 있는 사료 가운데 주렴과 갑장의 의뢰 기록은 순조 시기의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부터 나타난다. 이후 연희 무대 제작에 관한 수리, 배설은 진작의뢰·진찬의뢰·진연의뢰에 정착되어 꾸준히 나타난다.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열린 慈慶殿進爵(1827)과 과도기적 연희인 戊子進爵(1828), 집권기 마지막으로 설행된 己丑進饌(1829)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연희 구성 요소들의 설치 범위와 가변시설 중 가벽시설인 주렴, 갑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중연희의 공간과 가변시설의 연구는 궁중연희에서의 공간 활용⁵⁾과 가변시설인 차일⁶⁾, 판장⁷⁾ 등의 건축사 연구가 설행되어 있다. 공연예술 분야⁸⁾에서도 연희 무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변시설 중에서 무대의 가벽 기능을 담당한 주렴의 건축사적 연구는 연희 의례 절차상 位階를 구분하는 주렴의 기능⁹⁾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갑장의 건축사적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궁중연희 내연의 가변시설 가운데 상호보완적 가벽시설로 배설된 주렴과 갑장이 조선 말기로 이어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2. 순조 궁중연희 무대 구성 요소의 설치 경향

궁중연희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는 순조 이전 시기부터 있었다. 연희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에 관해 수리·배설의 논의를 사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공감¹⁰⁾이 초기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발과 돛자리 또한 배설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형세가 이와 같으니 가을이 되면 만들어 **배설**하라.” 하였다.¹¹⁾

왕세자가 유희헌(攸好軒)에 앉고 예조 당상, 호·공조판서, 사용제조, 장악제조가 입대하여 할 때 … 조종영이 아뢰기를,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요?” 하니, 영하기를, “**자**

5)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7) 한수원,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가변시설에 관한 연구: 판장, 취병, 가퇴, 휘장, 차양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8) 서지연, 「한국 전통 공간막이에 나타난 조형디자인 조사연구: 발과 방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 Jin-Young Seok and Dong-Soo Han, *A Study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Red Blinds(朱簾) used in Playacting Stages of the Royal Court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chitectural Research, Vol.19, No.1, 2017, pp.13~19

10) 선공감은 고려·조선시대 토목과 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다.

11) 繕工監의 草記: 繕工監草記. 傳曰, 簾簾, 亦不排設, 殊極未安, 事勢如此, 待秋造排.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5월 26일 계사)

경전으로 하라.” 하였다. 이어 박중훈에게 하령하기를, “연석(筵席)에서 물러난 뒤 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니, 박중훈이 아뢰기를, “작년에 이미 수리를 거쳤으니 공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니, 영하기를, “다시 수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창호가 뚫린 곳이 있으면 다시 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하기를, “보게 할 곳을 살펴보았는가?” 하니, 박중훈이 아뢰기를, “그저께 해가 저물어 살펴보았는데, 뜰 안에는 고르게 보설하여 높고 낮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은 모두 행각의 창벽에 연결시키면 작년에 비해 조금 넓을 듯합니다. 행각은 바깥쪽으로부터 길을 통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경문이 주렴 안에 있는 뒤에야 편리할 듯하고, 주렴 밖은 공간이 너무 좁으면 혹은 곤란할 염려가 있을까 생각합니다.”¹²⁾

종합해 보면, 순조 이전부터 연희 무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배설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궁중연희 내연의 요소 중에서 주요한 논의 대상은 鋪陳, 보게, 차일, 주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 시기에 궁중에서 설행된 연희는 1809년에 혜경궁의 관례 60돌을 기념하여 己巳進表裏進饌이 열린다. 이는 수렴청정이 끝나고 순조의 친정이 시작된 후 열린 연희로, 이후 설행되는 연희의 선례가 된다. 순조 시기의 연희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에 설행으로 발전한다. 대리청정기에 열린 자경전진작은 원손(헌종)의 탄생을 경축하여 1827년 9월에 왕과 왕비에게 올린 연희이다. 무자진작은 순원왕후의 40세를 경축하여 1828년 2월과 6월에 설행된 연희이다. 무자진작은 증축된 자경전에서 설행되었으며, 연희에서 王世子翌日會酌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효명세자 집권 마지막 해에 설행된 기축진찬은 순조의 보령 40세와 즉위 30년을 경축하여 1829년 2월과 6월에 왕에게 올린 연희이다. 효명세자인 왕세자의 기획으로, 연희 무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종합해 보면, 자경전진작은 보게, 차일, 주렴을 설치하고 주로 地衣를 수리했다. 다음 해에 설행된 무자진작은 증축된 자경전에서 설행되는데, 무자진작 시 배설된 지의는 그대로 사용하고 紅鼎袖甲帳, 懸板, 六油屯, 白木大遮日 등이 추가되었다. 무자진작은 왕세자익일회작이 양상이 나타난 연희로, 왕세자가 연희를 주도하기 위해 거취한 環翠亭에 보게를 배설하고 지의와 창을 도배하여 수리하였다. 이는 왕세자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6월에 연경당에서 설행된 내연은 자경전보다 수리 물품이 간략화된다.

12) 무자년(1828, 순조 28) 1월 14일, 15일; 이의강 역, 『국역 순조무자진작의례』, 보고사, 2006, 53쪽

표 1. 순조 시기 연희 구성 요소의 修理·排設

進爵·進饌	修理·排設	慈慶殿進爵 (1827年 9月)		戊子進爵 (1828年 2月, 6月)			己丑進饌 (1829年 2月, 6月)		
		慈慶殿 內宴	環翠亭	慈慶殿 內宴	環翠亭	演慶堂 內宴	明政殿 外宴	慈慶殿 內宴	環翠亭
修理·排設	御榻·寶辰						○		
	日月五奉屏						○		
	挑花障子						○		
	彩花方席	○		○		○	○	○	
	彩花地衣	○	○	○				○	
	別紋地衣	○	○	○		○	○		
	別紋席					○	○		
	豹皮方席		○						
	補階	○	○	○	○	○	○	○	○
	竹欄干			○			○	○	
	遮日	○		○		○	○	○	○
	滿箭障子	○		○				○	
	白紋地衣						○		
	白紋席						○		
	懸板			○					
	白木大遮日			○					
	紅鼎袖甲帳			●					●
	六油屯			○				○	○
	楮注紙	○	○		○			○	
	明圖, 長劍							○	
烟窓紙				○			○		
草注紙	○						○		
青菱花							○		
白菱花	○								
朱簾	●		●		●		●		
紅袖甲帳	●		●				●		
黃木帳							●		
白木帳	●		●		●		●		

●: 연희에 사용된 주렴과 갑장, ○: 연희에 사용된 요소

기축진찬은 외연과 내연이 같이 열리는 성대한 진찬이었다. 외연이 열린 명정전의 구성 요소들은 御榻, 병풍, 방석, 지의, 보게, 난간, 차일 등이 있다. 특히 차일과 보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었다.

내연의 소용 물품을 살펴보면 현판, 창 의 도배, 지의, 방석, 반자, 분합, 홍정주갑장, 滿箭障子, 보게, 난간, 차일, 주렴 등이 있다. 현판은 다시 칠하고 문, 창을 도배하고 지의를 깔며 새로 필요한 물건은 구입하였다. 기축진찬의 외연 주요 구성 요소가 보게와 차일인 것을 알 수 있다. 내연은 보게와 차일, 홍정주갑장, 주렴, 帳으로 구성되었다. 순조 시기 연희의 구성 물품을 의궤의 수리·배설로 비교하여 <표 1>로 살펴보면, 내연에 소용되는 물품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자경전진작, 무자진

작에 비해 기축진찬에서는 연회에 다양한 물품들이 배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설행보다 기축진찬의 내연이 화려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연에서와 내연에서의 소용 물품을 살펴보면 지의, 보계, 차일은 공통되고 내연에는 홍정주갑장, 주렴, 홍주갑장 등이 추가된다. 홍주갑장은 내연에 나타나며, 홍정주갑장은 무자진작부터 나타난다. 주렴은 연경당 연회를 포함한 모든 내연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유교 문화의 전통인 남녀 구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렴이 왕실의 여성을 상징하고 위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궁중연회 무대는 다양한 요소의 선별적 준비와 체계적 배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과 함께 장인들의 노고가 필요했다. 순조 시기 연회 내연 무대의 구성 요소들은 효명세자의 돋보이는 기획력과 세심한 참여로 완성도가 높았으며, 독창적인 연회로 그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순조 시기는 연회 구성 요소들의 설치 양상이 정착되어 이후 시기까지 영향을 준다.

3. 순조 궁중연회 내연 무대 朱簾, 甲帳의 설치 방식과 위계

3-1. 朱簾의 설치 방식과 위계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발은 葦簾, 莞簾, 주렴 등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대나무 발에 朱漆한 귀갑문양의 주렴이 위계가 높았다. 이는 궁중연회의 내연에도 사용되었다. 주렴은 전각 내에 설치되어 시선 차단, 햇빛 차단, 남녀 구분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궁중연회 내연 무대에 배설된 주렴은 내연에서 왕실의 위계를 구분하며, 연회 공간을 신분에 맞게 위차를 구획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연에서의 주렴은 조선후기 궁중연회의 상징적 도구이다. 세종 대에 주렴의 제작 의례가 정해지고, 인조 대의 연회에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렴은 혜경궁을 위한 奉壽堂進饌과 演熙堂進饌에서부터 구체적 사용이 확인된다. 주렴은 봉수당에서는 전각 내에 설치되었지만, 연회당에서는 전각 외부인 전정 삼면에 주렴을 구획한 기록이 있다. 즉 주렴이 전내에서 전각 외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이후 주렴은 조선 시기 궁중 내연에 주로 사용되었다. 주렴은 차일, 보계, 갑장보다 연회 공간에 가장 늦게 나타난다. 주렴은 의계의 보계도와 반차도에 배설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주렴이 연회에 구획된 구체적 형태는 기사진표리진찬(1809)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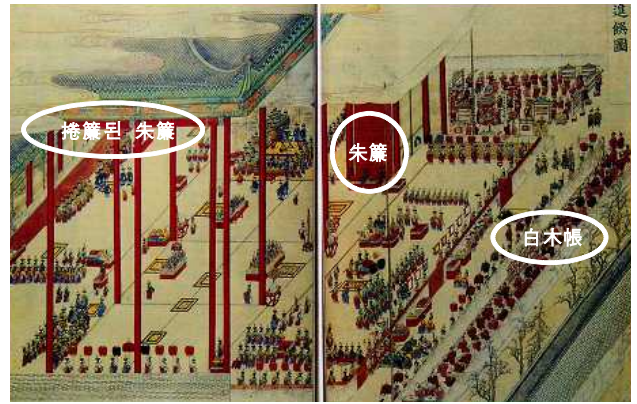


그림 1. 己巳進表裏進饌 朱簾의 排設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순조의 진정이 시작되고 열린 기사진표리진찬은 이전에 설행된 내연의 구성 형식을 잘 알 수 있는 연회이다. 전각의 주렴은 권렴하거나 강련시켜 배설하고, 전각 뜰의 주렴은 삼면으로 두르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내연의 형식에 주렴이 변화·배설되며 발전하는 중요한 연회이다. 연회 무대에 주렴을 배설하는 구체적 사례는 순조 시기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의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에서 확인된다.¹³⁾ 주렴을 보계 5間 위 7面に 매달아 설치하였고, 대청 편차에서 자경전 동은돌북상방의 서쪽 2戶에 주렴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계의 반차도를 살펴보면 보계 전정 공간에도 주렴이 가벽시설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1809년 순조가 주도한 기사진표리진찬의 발전된 양상으로 보인다. 주렴은 장인들이 제작하고, 배설방에서 배설하는 형식을 취했다. 자경전진작 다음 해에 열린 무자진작(1828)은 순원왕후의 40세를 경축하는 연회로, 궁중연회 내연 무대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시기이다. 이는 왕세자의 집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로, 내연의 연회에서 왕세자를 위한 익일회작의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내연의 무대에 설치되는 구성 요소들과 주렴은 이전 시기에 비해 배설이 다양해진다. 『戊子進爵儀軌』 주렴의 배설에 기록되어 있다.¹⁴⁾ 大朱簾을 三十六浮 사용한 것을 보면 내연의 연회에 주렴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자진작의 자경전진작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각 내의 주렴을 모두 捲簾하고 전각 전정의 중간에 주렴을 설치하여 공간을 이원화하여 연회를 설행하였다. 연회 전정의 무대를 주렴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구성은 설행

13) 補階五間正殿楹外前面七間縣朱簾簾外遮日。(『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卷之二, 「修理」); 大殿便次慈慶殿東溫埃北上房西二戶縣朱簾 尙房。(앞의 책, 「排設」)

14) 大朱簾 - 三十六浮, 縑草錄禾紬, 尙方所在用邊. 漉紅鄉絲三甲所 二良衣, - 戶曹.(이의강 역, 앞의 책, 2006, 210~211쪽)

기간 동안 동일하게 구획한다. 또한, 夜進爵의 주림 배설은 <그림 3>과 같이 전각 내의 서측 주림은 내려서 드리우고, 중앙과 동측은 권림하여 순조, 순원왕후의 座를 전내에 배설한다. 이는 정일에 설행된 왕, 왕비 좌의 방향이 남향에서 서향으로 바뀌어 배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희에 참여자의 위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날 설행된 왕세자의일회좌의 주림을 <그림 4>로 살펴보면, 전각의 동측과 서측의 주림을 降簾하여 내리고 전각 내 왕세자의 좌를 동쪽에 서향으로 배설한다. 이는 왕세자의 집권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이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일주년에 맞춰 정치적 권위를 보이기 위한 기획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6월에 별도로 설행한 연경당의 주림은 전각의 처마 끝단에 주림을 배설하여 연희를 설행하였다.

즉, 무자진작(1828)의 주림은 연희 목적과 왕실 참여자의 신분이나 위계에 맞게 배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자진작은 순조, 순원왕후, 효명세자, 신정왕후가 모두 참여하는 연희로 왕가의 결속력과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기획된 연희임을 알 수 있다.

무자진작 이후 효명세자 집권 마지막에 열린 기축진찬의 주림은 전각을 중심으로 배설되며, 전정에는 부분적으로 배설한다. 의궤의 반차도를 <그림 5>로 살펴보면, 자경전 전각의 前面, 後面과 側面の 전각 전체를 둘러 주림을 배설하고 주림과 함께 흥정주갑장을 전각 전면에 배설한다.

전정에는 內補階 위 좌측의 보경문과 동행각 부분에 배설된다. 내연의 주요 무대인 전정에 주림을 적극적으로 배설했던 무자진작과는 달리, 기축진찬은 전정에 소극적으로 주림이 배설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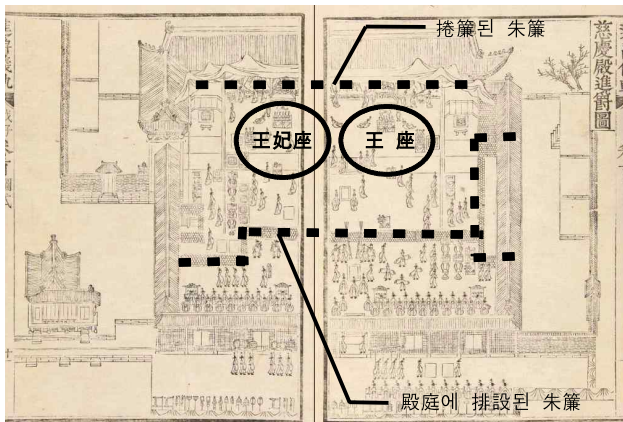


그림 2. 戊子進爵의 朱簾 排設,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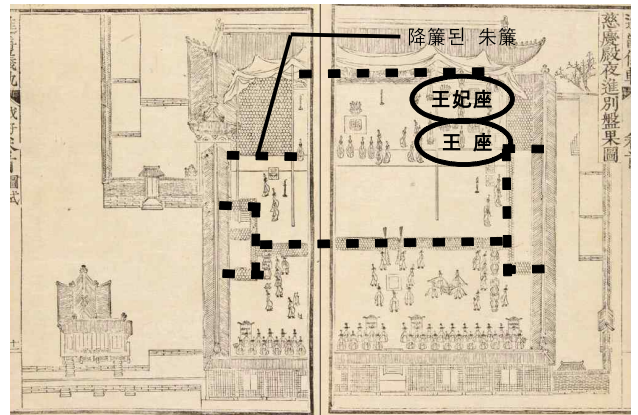


그림 3. 戊子進爵의 慈慶殿夜進別盤果 朱簾 排設,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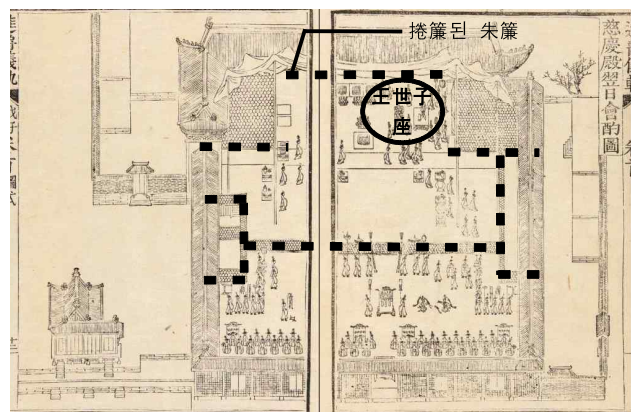


그림 4. 戊子進爵의 慈慶殿翌日會酌 朱簾 排設, 下

기축진찬은 순조의 사순과 어극 3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연희로, 명정전에서는 외연이, 자경전에서는 내연이 함께 설행된다. 즉, 주림의 소극적 배설은 대비, 왕비를 위한 연희의 목적보다 왕을 주빈으로 한 연희의 배설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내연의 연희 무대 구성에서 주림과 갑장의 배설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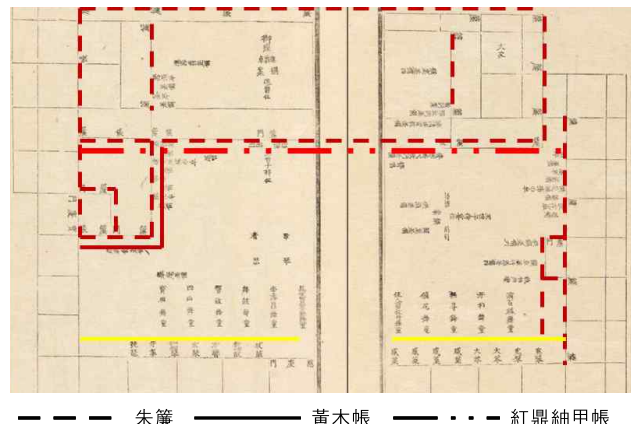


그림 5. 己丑進饌 慈慶殿 班次圖의 朱簾 排設

특히 기축진찬 연회에서 배설된 주림의 특징 중에서, 왕세자익일회작에서 주림 배설에 변화가 있다. 무자진작의 왕세자익일회작의 배설과는 상이한 형식으로 <그림 6>의 반차도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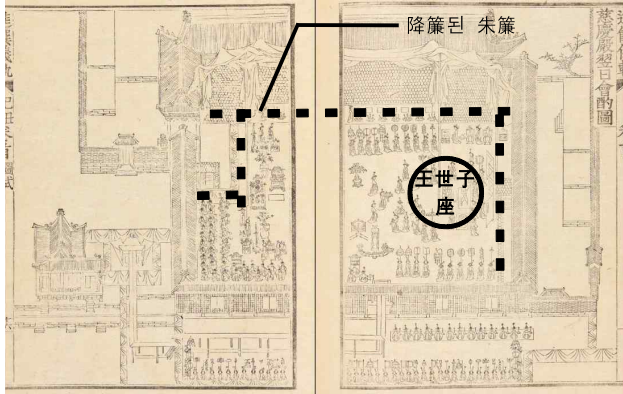


그림 6. 己丑進饌 慈慶殿翌日會酌의 朱簾 排設

<그림 4>의 무자진작에서, 왕세자익일회작은 전각 동·서측의 주림은 드리우고 중앙의 주림을 권림하여 왕세자좌를 전각 내에 동측에 설치하며 서향으로 배치하였다. 내연에서 자경전의 전내는 순조와 순원왕후의 좌가 배설되었던 위계가 높은 공간이었다. 왕세자 주도의 연회에서도 자경전 전내에 왕세자의 좌를 배설한 것은 대리청정기 효명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에 설행된 기축진찬(1829)에서의 왕세자익일회작은 <그림 6>의 반차도로 알 수 있다. 자경전 전각의 주림을 모두 내려서 드리우고, 왕세자 좌도 전정 내보게 위의 동측에 배설되어 서측을 향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진작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인 효명세자가 순조 어극 3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연회인 기축진찬에서는 순조와 순원왕후를 배려한 효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내연 무대의 구성에서도 독보적인 연회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주림의 수리·배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尙方借備

大朱簾 十二浮 - 縮改備每浮所入草錄吐絀內·拱白正布各 十三尺五寸, 捲索次紅鄉絲三甲所二巨里 圓環排具 二箇, 鴨項釘 四箇, 以上 折錢及雜物並錢 二百六十八兩五錢

中朱簾 十浮 - 縮改備每浮所入草錄吐絀內拱白布各 十一尺, 捲索次紅鄉絲三甲所二巨里 圓環排具 二箇, 鴨項釘 四箇, 以上 折錢及雜物並錢 二百二十兩三錢六分

小朱簾 七浮 - 縮改備每浮所入草錄吐絀內拱白布各 九尺,

捲索次紅鄉絲三甲所二巨里, 圓環排具 二箇, 鴨項釘 四箇 合縫造青, 麻絲四兩 以上 折錢及雜物並錢 一百五十三兩五錢六分¹⁵⁾

종합해 보면, 주림에 소용되는 것은 尙方에서 준비하며 草錄吐絀, 內拱白正布, 紅鄉絲, 圓環排具, 鴨項釘 등 기준에 사용한 주림 29浮를 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염이 생기고 수선이 필요한 주림의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縮의 수리는 안감을 백정포로 먼저 대고 그 위에 겹으로 초록색 명주로 마무리했다. 주림은 朱簾匠이 수리하고 부족한 것은 새로 제작하였다.

궁중연회 내연 무대에 배설된 주림은 순조 시기부터 의궤의 수리·배설에 기록된다. 이는 연회에서 주림이 왕실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능과 함께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인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3-2. 甲帳의 설치 방식과 위계

조선시대 帳은 갑장이나 휘장 등으로 통용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장류는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에 따라 揮帳, 甲帳, 遮帳, 面帳, 仰帳, 翼帳 등으로 구분된다.¹⁶⁾ 이는 장막을 두르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순조 시기에 설행된 궁중연회의 의궤에서 帳은 홍정주갑장, 鴉青木甲帳, 紅絀甲帳, 黃木揮帳, 白木帳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갑장¹⁷⁾은 겹으로 둘러 연회 무대의 주요 공간을 구획한다. 帳은 악공 영역과 外補階 등의 장소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갑장은 내연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갑장은 주림과 함께 보조적으로 내연 무대에 배설되었다. 순조 시기 내연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배설되며 주도적으로 배설되었다. 갑장은 내연이 열리는 무대를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외부와는 차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공간 분리라는 적극적 차단과 시선 차단이라는 간접적 차단의 기능을 한다. 갑장은 순조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된다. 1827년에 열린 자경전진작에서는 홍주갑장, 백목장이 주림과 함께 殿庭에 사용되었다. 이후 1828년에 설행된 무자진작의 갑장을 『무자진작의궤』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송방송 외 역, 『國譯 純組己丑進饌儀軌 卷二』, 민속원, 2007, 124쪽

16)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872쪽

17) 진작·진찬의궤에서의 帳은 주림이나 다른 소재와 함께 설치된다. 겹으로 설치되는 장막의 경우에 갑장으로, 한 겹으로 설치된 장막은 황목휘장과 백목장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紅鼎紬甲帳 - 九件 - 所入 - 紅鼎紬一百十九幅內, 甲一百十一幅帳巨里金十二箇, 前排級用, 甲八幅新備. 每幅長五尺五寸. 罷次紅鼎紬甲長一尺廣二寸九片. 紅鄉絲三錢. 帳巨里金二箇. 每左非紅鄉絲三甲所二良衣. 以上折錢五十兩八錢七分.

紅紬甲帳 - 九件 - 濟用監前排. 漆修補級用. 紅鄉絲三甲所一良衣, 豆錫帳巨里金十四箇, 戶曹.

무자진작의 갑장을 종합해 보면, 자경전진작에 비해 갑장의 종류가 많아진다.

무자진작에서 흥정주갑장의 수리를 보면, 다른 장막에 비해 물품이 많이 소용되며 많은 재정이 소용되었다. 즉, 흥정주갑장이 등급이 높은 귀한 장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장은 이전의 것을 수리하거나 부족한 것은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무자진작의 흥정주갑장은 주렴과 함께 전정의 보계 위에 가변시설의 가벽 형식으로 배설되었다.

紅紬甲帳은 흥정주갑장 다음의 위계로, 연희 무대에서 겹으로 둘러치는 帳이다. 흥정주갑장은 주로 내연 무대의 전정 무대에 가변시설의 가벽으로 배설된다. 이는 보온과 외부와의 직접차면 기능을 하며 궁중연희의 내연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흥정주갑장은 고종 시기의 내연에도 주로 배설되며, 흥칠된 주렴과 함께 연희 무대에서 가설 문과 가벽의 기능을 하게 된다. 직접차면의 장막과 간접차면의 주렴은 상호보완적인 배설로 내연 무대 가변시설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게 된다.

흥정주갑장의 새로운 형식은 효명세자 집권기의 마지막 연희인 기축진찬에서 나타난다.

기축진찬은 효명세자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연희로, 외연과 내연이 같이 설행되는 성대한 연희였다. 특히, 자경전에서 열린 연희가 화려할 수 있었던 것은 주렴과 함께 배설된 兩開드리개 형식의 흥정주갑장의 배설 때문이다. 우선 기축진찬의 흥정주갑장을 『己丑進饌儀軌』와 궁중기록화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紅鼎紬甲帳 - 九件¹⁸⁾

所入 - 紅鼎紬一百十九幅, 甲各長五尺五寸內甲三十八幅, 前排級用新備甲八十一幅, 甲各長五尺五寸罷次長一尺廣一寸五分四十一片及, 紅鄉絲一兩八錢 紅鄉絲三甲所十二把 鐵深帳巨里 金各四箇, 鴨項釘六十箇 以上 價錢四百四十六兩一錢四分.¹⁹⁾

18) 紅鼎紬甲帳 九件은 기축진찬 이전에 설행된 무자진작에서도 같은 수량이 소용된다. 커튼 형식으로 사용된 기축진찬과 달리, 무자진작에는 커튼 형식인 흥정주갑장의 형상을 찾을 수 없다. 이는 무자진작에서는 흥정주갑장을 주렴과 함께 가벽의 가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7. 己丑進饌의 朱簾과 紅鼎紬甲帳 (호암미술관 소장)

종합해 보면, 기축진찬의 흥정주갑장²⁰⁾은 이전의 연희와는 다른 형식으로 배설되었다. 궁중기록화의 흥정주갑장은 자경전 전각 전면에 커튼 형식의 兩開드리개로 배설되어, 殿庭에 가벽 시설로 배설되었던 형식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궁중연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내연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전의 내연에서는 주렴이 주도적으로 배설되었던 것과 달리, 기축진찬에서는 흥정주갑장이 주도적으로 배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효명세자의 의도된 기획으로 순조를 경축하는 일차적 의미와 함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며, 왕권 회복의 의지를 담아 왕의 권위에 맞게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축진찬 흥정주갑장의 배설 형식은 조선 연희 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화려한 연희로, 이후 궁중연희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 헌종과 고종 시기의 흥정주갑장은 내연의 보계 위에 둘러치는 가설구조 형식으로 나타난다.

기축진찬이 열린 자경전의 慈慶門과 寶慶門에는 청목갑장과 아청목갑장이 각각 설치된다. 아청목갑장은 「동궐도」의 대조전 앞 월대에 설치된 관장벽 사이의 문에 걸어 외부와 차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청목갑장을 사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慈慶門

青木甲帳 二件

所入 - 鴉青木七幅甲各長五尺三寸, 同道里鴉青木四尺二寸,

19) 송방송 외 역, 앞의 책, 2007, 134쪽

20) 기축진찬의 흥정주갑장은 붉은 홍색의 고급 명주로, 현재 흥초휘장 등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홍초는 치맛감으로 사용된다. 진찬의례의 수리·배설에는 흥정주갑장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즉, 기축진찬의 커튼 형식의 兩開드리개는 흥정주갑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落纓鴉青木半骨長一尺五寸三片, 綿鈴九箇, 紅漆帳貼本二箇二寸釘七箇, 圓環菊花童排具二箇, 菊花童釘具三箇, 門畫小人物二長, 以上 價錢十一兩八錢六分.

寶慶門

鴉青²¹⁾木甲帳 一件

所入 - 鴉青木七幅甲各長五尺, 同道里鴉青木四尺二寸, 落纓鴉青木半骨長一尺五寸三片, 綿鈴九箇, 紅漆帳貼本二箇二寸釘五箇, 圓環菊花童排具二箇, 菊花童釘具二箇, 門畫小人物二長, 以上 價錢十兩二錢八分.²²⁾

즉, 청목갑장과 아청목갑장은 내연이 열리는 전각의 주요 문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청목갑장, 아청목갑장은 명칭상의 차이가 있지만 所入을 확인해 보면 아청무명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동달이와 낙영이 함께 설치되었다. 자경문에 설치되는 아청색의 갑장은 외부와 출입하는 문에 설치되어 양개드리개 형식으로 드리워지거나 건어진 형태로 배설된다.

아청목갑장은 연희가 진행되는 전정의 연희 공간을 외부와 전면적, 일차적으로 분리한다.

홍주갑장은 홍정주갑장 다음의 위계로, 연희 무대에서 겹으로 둘러치는 帳의 종류로 주로 가벽시설로 배설된다. 이는 보온과 직접차면의 기능을 하며 내연의 연희 무대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기축진찬 연희의 전정 공간에 주림과 함께 사용된 주요 가벽시설은 황목휘장과 백목장이 있다. 이는 한 겹으로 둘러 배설한다.

홍주갑장은 연희 공간을 외부와 직접 차단하고, 황목휘장은 여령의 정계를 실행하는 영역과 악사 영역을 분리하는 기능으로 설치되었다. 이를 『己丑進饌儀軌』의 배설 부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紅紉甲帳 - 九件 - 濟用監前排本所修補級用監帳漙紅鄉絲三甲所十二把豆錫鑷深帳巨里金各四箇鑷深鴨項釘六十箇本所新備.

黃木揮帳 - 四件. 二件二十四幅 二件九幅 濟用監帳漙紅條所十二把, 小圓環六箇 本所措備.

白木大遮日 - 一浮 - 排設房.²³⁾

홍주갑장은 내연에 주로 배설된다. 다만, 황목휘장은 자경전전각, 무자진작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기축진찬 이전 시기의 내연에서는 주로 백목장을 사용하였다. 황목장은

21) 옥개는 모두 아청색으로, 혜경궁이 화성행차(1765)에 사용한 가교였다. 옥개는 집의 위쪽을 덮어 가리는 부분을 말한다. (『장용영고사:역주』, 수원시, 2005, 219쪽)

22) 송방송 외 역, 앞의 책, 2007, 135쪽

23) 송방송 외 역, 앞의 책, 2007, 144쪽

기축진찬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이후 지속적으로 연희 무대에 배설된다. 홍주갑장은 고종 시기의 내연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에는 황목장이 궁중연희 무대에 주요하게 배설된다.

연희의 갑장은 다양한 종류로 전정의 내보계, 외보계 등에 주림과 함께 배설되거나, 독립적으로 배설되었다. 즉, 갑장의 위계를 수리·배설로 살펴보면, 홍정주갑장이 비용과 품목의 소용에서 등급이 높은 귀한 帳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순조 궁중연희 내연 무대 朱簾, 甲帳의 단위와 관리기관

4-1. 朱簾과 甲帳의 단위

주림의 단위인 浮는 뜬·돛자리·담요 따위를 세는 단위로 차일, 방장, 발 따위를 세는 단위, 화살대 100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세는 단위, 이영의 마름을 세는 단위이다. 또한, 油菴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²⁴⁾

또한, 『정조실록』의 기록에서는 竹을 세는 단위로 浮가 사용되었다. 유둔은 番으로 사용되었으나, 浮도 함께 사용하였다.

三鄉竹三百浮, 金海竹一百浮, 興陽竹五百浮, 常箭竹一千一百三十八浮, 合箭竹二千三十八浮. 二張附油菴二十番, 六張附油菴十番, 合油菴三十番.²⁵⁾

주로 대나무를 세는 단위로 浮가 사용되고 유둔의 단위는 番으로 기록되었다. 즉, 연희 무대에 세우는 것은 浮, 바르거나 붙이는 종류는 番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浮는 竹의 개수를 세는 단위 등으로 사용되었다. 갑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세는 단위인 件으로 사용되었다. 『무자진작의궤』와 『기축진찬의궤』의 기록을 살펴보면, 紅鼎紉九件 - 紅鼎紉一百十九幅, 各長五尺五寸, 기축진찬은 紅鼎紉九件 - 119幅, 各長五尺五寸, 靑木甲帳二件 - 鴉青木七幅, 各長五尺五寸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1幅은 五尺五寸, 119幅이 9件인 것으로 보아 갑장의 1件은 13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림의 단위인 浮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림은 내연 무대 보계 위의 가설구조에 매달려 뜬 형식으로 배설되었다. 즉, 보계 위에 매달려 뜬 형태로 배설된 주림의 단위를 浮로 헤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장

24) 『원행음묘정리의궤:역주』, 수원화성박물관, 2015, 499쪽

25)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2월 19일 정해

은 내연 무대의 보계를 둘러 감싸는 형식의 가벽으로 배설되었는데, 이는 치마폭을 두르는 형태와 같은 방식이다. 이에 갑장의 단위로 幅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2. 朱簾과 甲帳의 관리기관

연희의 주렴과 장막은 재료에 따라 관리, 제작, 설치 영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였다. 이를 <표 2>로 살펴보면, 내연에 사용되는 주렴과 장막은 尙方, 戶曹, 濟用監, 排設房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

표 2. 朱簾과 甲帳의 관리기관과 세부 구성의 수리·배설

內宴	品目	管理	修理·排設
奉壽堂 進饌	朱簾	尙方	大朱簾 六浮 - 縹草錄禾紬
	帳	整理所	縹青紗帳 - 三幅浮
演熙堂 進饌	朱簾	尙衣院	朱簾 十二浮
慈慶殿 進爵	朱簾	尙房	縣朱簾
	朱簾	尙方	大朱簾 - 三十六浮. 縹草錄禾紬, 尙方所在用還.
戊子 進爵	紅鼎袖 甲帳, 紅袖 甲帳	濟用監	紅鼎袖甲帳 - 九件 - 所入 - 紅鼎袖一百十九幅內, 甲一百一十一幅帳巨里金十二箇, 前排佞用, 甲八幅新備. 每幅長五尺五寸. 罽次紅鼎袖甲長一尺廣二寸九片. 紅鄉絲三錢. 帳巨里金二箇. 每左非紅鄉絲三甲所二良衣. 以上折錢五十兩八錢七分. 紅袖甲帳-九件-濟用監前排.
		戶曹	縹修補佞用. 紅鄉絲三甲所一良衣, 豆錫帳巨里金十四箇, 戶曹.
	朱簾	尙方	大朱簾 - 三十六浮-縹草錄禾紬 縹紅鄉絲三甲所, 六良衣六巨里尙方所在用還.
		戶曹	每佐非紅條所 十良衣-戶曹
己丑 進饌	紅鼎袖 甲帳	濟用監	紅鼎袖甲帳 - 九件 - 所入 - 紅鼎袖一百十九幅, 甲各內甲三十八幅, 前排佞用新備甲八十一幅, 甲各長五尺五寸罽次長一尺廣一寸五分四十一片及, 紅鄉絲一兩八錢
		戶曹	紅鄉絲三甲所十二把. 深帳巨里 金各四箇, 鴨項釘六十箇以上 價錢四百四十六兩一錢四分.
	青木 甲帳	濟用監	慈慶門 - 青木甲帳 二件, 所入 - 鴉青木七幅甲各長五尺三寸, 同道里鴉青木四尺二寸, 落纓鴉青木半骨長一尺五寸三片, 綿鈴九箇, 紅漆帳貼本二箇二寸釘七箇
		戶曹	圓環菊花童排具二箇, 菊花童釘具三箇, 門畫小人物二長, 以上 價錢十一兩八錢六分
鴉青木 甲帳	濟用監	寶慶門 - 鴉青木甲帳 一件, 所入 - 鴉青木七幅甲各長五尺, 同道里鴉青木四尺二寸, 落纓鴉青木半骨長一尺五寸三片, 綿鈴九箇, 紅漆帳貼本二箇二寸釘五箇	
	戶曹	圓環菊花童排具二箇, 菊花童釘具二箇, 門畫小人物二長, 以上 價錢十兩二錢八分.	
紅袖 甲帳	濟用監	紅袖甲帳 - 九件, 濟用監前排本所修補佞用監帳縹紅鄉絲三甲所十二把豆錫鐵深帳巨里金各四箇鐵深鴨項釘六十箇本所新備.	
	戶曹	帳縹紅條所十二把, 小圓環六箇 本所措備	
黃木 揮帳	濟用監	黃木揮帳 - 四件. 二件二十四幅 二件九幅 濟用監.	
	戶曹	帳縹紅條所十二把, 小圓環六箇 本所措備.	

종합해 보면, 주렴은 정조 시기부터 상방에서 준비하여 제작하거나 수선하였다. 주렴은 주렴장인이 제작하고 수리하였다. 주렴의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縹의 재료인 비단은 상방에서 준비한다. 순조 시기부터는 세분화하여 담당 기관이 나뉘며, 주렴의 제작과 부착에 필요한 철물은 호조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甲帳은 정조 시기에 열린 봉수당진찬에서는 整理所에서 준비하였으나, 순조 시기인 자경전진작(1827)부터 갑장의 비단은 제용감에서 준비하였다. 갑장에 소용되는 철물 역시 호조에서 준비하였다. 즉, 수리·배설로 연희 무대의 주렴과 갑장의 관리기관을 알 수 있다.

주렴을 준비하는 상방, 갑장을 준비하는 제용감과 철물 등을 준비하는 호조로 품목을 분리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희의 내연 무대에 배설하는 것은 배설방에서 담당하였다.

즉, 순조 시기는 기관이 담당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시기로, 주렴과 갑장에 사용되는 품목들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조 시기에 나타난 왕세자익일회작의 형식으로 연희 실행일이 길어지는 양상과 연관이 있다.

연희 실행일의 증가로 내연 무대 장치 요소들의 견고성이 요구되었다. 이는 연희 요소들의 품목 증가로 이어지고 관리기관의 기능적 분리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조선후기 궁중연희는 內宴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순조 시기 효명세자 집권기에 열린 연희는 왕세자의 주도적인 기획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게 연출된다. 또한, 『慈慶殿進爵整體儀軌』부터 연희 무대를 구성한 요소들이 의례의 修理·排設로 정착되기 시작한다.

궁중연희 내연 무대의 가변시설 가운데 가벽으로 배설된 朱簾과 甲帳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戊子進爵의 朱簾은 王世子翌日會酌 형식의 등장으로 내연 무대에서 배설의 위치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무자진작에서 왕세자익일회작 전각의 주렴은 捲簾하여 왕세자 座를 전각 내에 설치했지만, 기축진찬에서 왕세자익일회작 전각의 주렴은 降簾되어 드리워지고 왕세자 좌가 전각 외의 殿庭으로 위치가 변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무자진작으로 왕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고, 기축진찬으로 순조의 왕권 회복을 반영하기 위한 왕세자의 기획으로 생각된다. 주렴은 궁중연희 내연 무대에서 왕실의 위계와 위치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배설되며 발전한

다. 순조 시기 주렴은 왕실의 주빈에 따라 왕실 여성이 주빈인 경우에는 주렴을 적극적으로 배설하고, 왕이 주빈인 경우에는 주렴을 소극적으로 배설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기축진찬의 紅鼎紉甲帳은 전각 전면에 兩開드리개 형식으로 배설된다. 이는 어극 30주년을 맞은 순조, 즉 왕을 상징한다. 이는 효명세자의 주도적 기획으로 왕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득권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왕실의 기획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축진찬의 흥정주갑장과 갑장의 위계를 살펴보면, 왕을 상징하는 흥정주갑장의 위계가 가장 높고, 전각의 주요 문에 배설되는 鴉靑木甲帳, 전정 무대를 가벽 구획하며 외부와의 직접차단을 목적으로 배설된 紅紉甲帳, 악공 영역이나 外補階 등에 설치된 黃木揮帳과 白木帳 순으로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순조 시기는 연회 무대 장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던 시기로, 주렴은 尙方, 갑장은 濟用監, 철물은 戶曹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적으로 관리기관이 분리된 것은 순조 시기 연회 무대의 확장 및 확대에 따른 구성 요소들의 증가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효명세자 집권기 마지막 연회였던 기축진찬은 정조 시기와 순조 시기 연회들을 응용하여 발전시키고, 왕권 회복의 의지를 반영하여 기획된 독창적 연회이다.

결국 순조 시기는 궁중연회 내연의 무대 구성 요소들이 의례의 수리·배설에 정착하는 시기이며, 내연 무대를 중심으로 연회 구성 요소들을 정조 시기보다 변화·발전시켰다.

여기에는 궁중연회 내연 무대에 상호보완적으로 배설된 가변시설의 가벽인 朱簾, 甲帳이 연회에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순조 시기의 연회 무대는 이전에 배설되었던 것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검약의 미덕과 연회를 실행하는 기간과 목적에 맞게 수리하여 배설하는 합리적 설치로 조선후기 궁중연회 내연 무대의 기틀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2. 『승정원일기』
3.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4. 『戊子進爵儀軌』, 1828

5. 『己丑進儀軌』, 1829
6. 이의강 역, 『국역 순조무자진작의례』, 보고서, 2006
7. 송방송 외 역, 『國譯 純祖己丑進儀軌 卷一·卷二·卷三』, 민속원, 2007
8. 전통예술원, 『국역 현종무신진찬의례 卷一·卷二·卷三』, 민속원, 2005
9.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 『국역 수연등록』, 민속원, 2004
10. 영건의례연구회, 『영건의례: 의례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11. 『장용영고사』, 수원시, 2005
12. 『원행음묘정리의례: 역주』, 수원화성박물관, 2015
13.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5. 한수원,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가변시설에 관한 연구: 판장, 취병, 가퇴, 휘장, 차양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6. 서지연, 「한국 전통 공간막이에 나타난 조형디자인 조사연구: 발과 방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7. Jin-Young Seok and Dong-Soo Han, *A Study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Red Blinds(朱簾) used in Playacting Stages of the Royal Court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chitectural Research, Vol.19, No.1, 2017, pp.13~19
18. 석진영, 「조선후기 궁중연회 내연무대와 주렴(朱簾)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접수(2017. 10. 15)

게재확정(2017. 11. 11)